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른 대학생들의 무자녀가족에 관한 인식 연구*

College Students' Views on Childless Families Based on an Ethnographic Decision Model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복지학부
전임강사 양 성 은**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Yang, Sung-Eun

〈Abstract〉

An Ethnographic Decision Model (EDM) to explore socioeconomic, 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the attitudes toward childless family was developed in this study. From college students' protocol writings,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participants in general had conservative views about childless families. They tended to simplify childless families as either infertile couples or DINK (Double Income No Kids) couples. The participants explained why they decided to have or not to have children in the future. They seemed to believe in a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and idealize parental roles, while recognizing the high economic and psychological cost of rearing children. They claimed that Korean society set high standards for parents, which were too difficult to reach. The participants, having been educated to believe in self-actualization through their successful careers, struggled to choose between a family with children and one without childre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holistic view, and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s between traditional ideology about the family and socioeconomic contexts when interpreting college students' perspectives on childless family.

▲주요어(Key Words) : 무자녀가족(childless family),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Ethnographic Decision Model)

1. 서 론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단기간에 이루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통계청(2004)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 인구현황」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자녀수는 지난 1970년 4.53명에서 2003년 기준 1.17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결혼률 저하와 함께 결혼 후에도 자녀가 없는 무자녀가족의 증가가 그 핵

심적 원인이다. 특히 무자녀가족은 1985년 전체 가구의 7.8%였던 것이 95년 12.6%, 2000년 14.8%로 늘었다(조선일보, 2003. 8. 11.). 한국여성개발원(2004)이 2003년에 전국 3,500가구 9,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이 15.0%에 달했다.

무자녀가족의 증가는 곧 젊은 세대가 사라진다는 뜻이며, 이는 국가 노동력 감소를 의미한다. 2003년 기준 15~65세의 생산가능인구 8.6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무자녀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노동력 부족과 노령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가중은 극심해질

* 이 논문은 200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양성은 (E-mail : seyang@chosun.ac.kr)

것이다. “출산 파업”으로까지 묘사되는 무자녀가족의 증가는 이제 여성 개인이나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주요 일간지에서 무자녀가족의 사례를 특집기사 형식으로 소개하거나, TV 시사 프로그램(예: EBS의 “피디리포트: 출산을 1.17 시대,” 2003. 8. 28. 방영)에서 이들을 새로운 가족 트렌드로 언급하는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음놓고 애를 낳으세요. 정부가 키워드리겠습니다(중앙일보, 2003. 7. 12.)” 라는 선거공약을 했고, 정부가 2003년을 기해 공식적으로 출산 장려를 선포한 점도 무자녀가족의 사회적 쟁점화를 반영한다.

무자녀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는 것과는 달리 이들에 대한 국내 가족학계의 학문적 고찰은 부진하다. 물론 인구정책 측면에서의 실태조사나 여성학계의 논의, 또는 보육학계의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문헌들은 사회인구학적 관심에서 출산을 변화 양상을 개괄적으로 기술(記述)하는 수준에 머물거나(김승권, 2003; 김한곤, 1991; 이춘석, 2003), 여성학적 시각에서 양성불평등 제도화의 모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거나(조옥라, 1999), 또는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보육환경 개선이 출산 장려를 유도하리라는 막연한 주장을 반복하는(보건복지부, 2000; 이연주, 2003) 등 미약한 수준이다. 무자녀가족 증가 이유에 대해서도 국가 경제의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 부재, 자녀교육에 드는 고비용 등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가족학계의 심층적 논의는 부족하다.

이제 무자녀가족에 대한 논의는 통계적 기술이나 피상적인 정책 제안을 넘어서서 무자녀가족의 증가를 야기하는 보다 근본적인 심리내적인 변화, 즉 우리사회의 가족개념, 자녀관, 성역할 등의 변화를 이해(understanding)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에 대한 탐구는 질적연구의 본질로서(조용환, 1999), 질적연구는 현상에 부여하는 사람들의 해석과 의미를 명료화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관념, 느낌, 동기, 신념 등을 그들이 처한 맥락 안에서 심층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Schwandt, 1979). 이러한 질적연구의 본질적 특성은 무자녀가족이라는 현상을 우리문화 안에 맥락화하여(contextualized) 통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무자녀가족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숙지한다면, 자녀출산기에 있는 기혼부부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앞으로 결혼하여 자녀를 갖게 될 미혼남녀들이 무자녀가족에 대해 어떠한 인식, 태도,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인 탐색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기혼남녀만을 대상으로 한 자녀출산 결정에 관한 논의(김한곤, 1991; 옥선화, 2003; 피디리포트, 2003)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무자녀가족 추이를 예상하기에 제한적이다. 반면, 현재 20대 초반의 미혼남녀는 무자녀가족이 아직은 낯설지만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형태임을 목격하는 장본인이다. 이들이 무자녀가족에 대해 현재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앞으로 나타날 무자녀가족의 양상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근거해 효율적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무자녀가족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대 미혼 대학생들이 무자녀가족을 어떻게 개념화하며, 이들의 가족 내/외체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이 자신의 자녀관 또는 무자녀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결혼적령기 이전의 20대 미혼남녀들이다. 이들을 연구참여자로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현시점에서 무자녀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형성될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소재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미혼 남녀대학생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본 대학의 교양과목 중 전공과 학년에 제한 없이 수강 가능한 대형 강의 2개 분반을 선정하고, 연구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였다. 준거적 선택 방법(조용환, 1999: 28)에 따라 다양한 전공과 학년의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켜 20대 미혼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전형적 연구참여자들을 선정(typical case selection: Spradly, 1979)하고자 노력하였다.

전체 참여자는 103명(여자 83명, 남자 20명)이며, 이들의 연령범위는 만 19세~만 24세였다. 참여자를 동일한 성비(性比)로 모집하지 않은 것은 성차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므로, 의도적으로 성비를 제한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일상세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상세계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조용환, 1999: 29)”는 논리에 입각하여 연구참여자 모집 과정이 연구자의 통제 보다는 대학생들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데 영향을 받았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프로토콜서술(protocol writing)¹⁾을 요청하였다. Van Manen(1990: 65)은 프로토콜서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여자의 생생한 개인적 체험(lived-personal experience)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개인적 경험을 직접 글로 적어주세요(Write a direct account of a personal experience you lived through it).” 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프로토콜서술은 대면인터뷰(face-to-face interview) 보다 연구하는 현상에 대한 참여자

1) “The term ‘protocol’ derives from the Greek, referring quite appropriately to the original draft. Protocol writing is the generating of original texts on which the researcher can work (Van Manen, 1990: 63).”

들의 의견, 추론, 가치판단 등 인지적 과정에 중점을 둔 자료를 수집하는데 유용성이 높다. Mason(1996: 119)도 “존재론적 입장에서 볼 때 말로 표현된 것보다 글로 작성된 것이 사회적 실체의 유의미한 구성요소를 더 잘 반영하며, 사회적 실체의 단면들을 추적하거나 판독하는데 용이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자녀가족 현상에 대한 참여자들의 정서적이고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반성적 태도(reflective attitude)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프로토콜서술을 실시하였다. 2003년 10월 2일에 개방형 질문지와 연구참여동의서를 배포한 후 2003년 10월 9일~18일 동안 프로토콜서술문을 수거하였다. 프로토콜서술을 위한 질문은 (1) 무자녀가족에 대한 관념적 이미지, (2) 무자녀가족의 가족 내/외체계 상호작용, 그리고 (3) 사회적 차원 및 개인적 차원에서 무자녀가족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의 4문항이며, 참여자들이 제출한 프로토콜서술문의 평균 길이는 A4용지 6~7장 분량으로 구성되었다.

- ① 무자녀가족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은 어떠한 것입니까?
- ② 무자녀가족의 부부관계, 확대가족(시댁, 친정, 기타 친인척)과의 관계, 친구·선호배·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어떠할지 생각해보고 이를 묘사하십시오.
- ③ 우리사회의 무자녀가족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찬성하면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상술하십시오.
- ④ 본인이 결혼한다면 자녀를 가질 계획입니까? 아니면 갖지 않을 계획입니까? 자녀를 가지려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자녀를 선택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술하십시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Ethnographic Decision Model: EDM)의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다.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은 고전적 내용분석(classic content analysis)과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바탕으로 하며, 특정 문화집단의 구성원이 구체적 상황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예측하는 질적 인과관계 분석방법이다. 이 모델은 의사결정 과정을 “if-then 문장”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연속적인 질문과 대답을 순서도(flowchart) 형태로 표현한다. 이론모델의 시작은 “예/아니요”로 결정되는 단답형 질문(예: “자녀를 가질 계획입니까?”)으로 출발하며,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판단 근거를 밝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가치, 사회적 상호작용, 사적(私的) 의미부여 등이 분석되며, 궁극적으로 잠정적 이론모델을 도출하게 된다(Hill, 1998; Ryan & Bernard, 2000: 787-789; Ryan & Martinez, 1996).

본 연구는 무자녀가족에 대한 20대 미혼 대학생들의 정의적(定義的) 개념을 우선적으로 고찰한 후,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 의거하여 무자녀가족에 대한 찬/반을 시작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무자녀가족의 부부관계, 확대가족과의 관계, 또래 및 동료집단과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인식을 탐색하였다.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이 비교, 분석되어 무자녀가족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 또한 논의되었다.

4. 연구절차의 타당화검증(verification)

Creswell(1998: 194)은 질적연구가 신뢰롭게 수행되었음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과정의 타당화검증(verification)을 제안했다. 양적연구의 신뢰도(reliability)나 타당도(validity)와는 달리 질적연구의 타당화검증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 과정(value-laden process)을 평가하며, 질적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획득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본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과 가치(value)는 전체 연구과정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가치개입과정은 Mason(1996: 237)이 제시한 인식론적 특권(epistemological privilege)을 바탕으로 하였다. 인식론적 특권이란 특정 연구주제를 경험한 대상자가 그 주제에 관해서 보다 타당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인식론적 특권을 주장하는 방법론은 해방론 연구(emancipatory research)나 장애인 연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억압받는 여성들을 여성연구자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장애를 지닌 연구자가 장애자에 가해지는 차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무자녀가족으로서, 우리사회가 무자녀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왔다. 이러한 사적 경험은 Van Manen(1990: 54)이 언급한 자기논리적 출발점(ego-logical starting point)을 갖게 하며, 질적연구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연구자의 민감성(sensitivity)을 증진시켜 전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또다른 타당화검증은 부정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이다. Miles & Huberman(1994: 134-137)은 부정사례분석을 설명하면서 잠정적 이론모델이 성립된 후 그 이론모델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치되는 사례를 발견하여, 이론모델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리적 연계를 보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을 도출한 후 이 모델에 의거하여 역(逆)으로 전체 사례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론모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예외사례에 주목하고, 이러한 예외사례들이 갖는 독특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여 전체 이론모델의 정교화를 시도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무자녀가족에 대한 20대 미혼 대학생들의 정의적 개념을 탐색하고, 무자녀가족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자녀관 또는 무자녀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무자녀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고정관념, 느낌 등을 분석하여 무자녀가족에 대한 총체적 개념을 도출하였다. 다음에는 이러한 정의적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자녀출산 및 무자녀 결정 이유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자녀가족에 대한 찬/반을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차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전통적 규범, 신념, 관습, 정체성 등을 연구참여자들이 부여하는 사적 의미와 함께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20대 미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무자녀가족의 부부관계, 확대가족과의 관계, 또래 및 동료집단과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고찰되었다. 끝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무자녀가족에 대한 태도의 일치 및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사회의 변화하는 가치관, 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적 허용성 등에 주목하였다.

1. 무자녀가족에 대한 정의적 개념

본 연구에 참여한 20대 미혼 대학생들은 무자녀가족을 개념적으로 양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무자녀가족을 불임부부 아니면 DINK(Double Income No Kids)로 단순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정의하는 DINK는 중산층 이상의 전문직 맞벌이 부부를 의미한다. 다음은 무자녀가족을 정의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다.

무자녀가족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선 부부가 불임일 경우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부부가 불임이 아닌데 무자녀가족이라면 아이를 싫어하고, 일에만 빠져있고, 자신들의 삶을 편하게 살면서 자신들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것이라는 편견이 든다. 또 사회적으로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선입관을 가지게 된다... 부부간의 책임감이 자녀가 있는 가족보다 적어서 부부간에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쉽게 이혼이나 별거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 #37)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자녀가족이란 단어에서 불임을 떠올리며, “불쌍하고, 우울하고, 불행한 부부”로 무자녀가족을 개념화하였다. 한 연구참여자(여, #13)는 무자녀가족에 대해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불임인가? 애가 없으면 부부간에 정이 없어서 금방 헤어진다던데, 이제 곧 이혼하겠네. 아이 없이 외롭게 어떻게 지내지?” 라고 반응했다.

반면 부부의 자발적 결정을 감안하여 무자녀가족을 DINK로 정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무자녀가족이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 나에게 그 이미지는 매우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무자녀가족은 일반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자녀가족을 선택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독특한 삶의 방식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되어진다. 나에게는 그 독특함이 현대적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사가 분명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현대적으로 살면서 메마른 삶을 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또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이기적인 면이 느껴지기도 한다. (여,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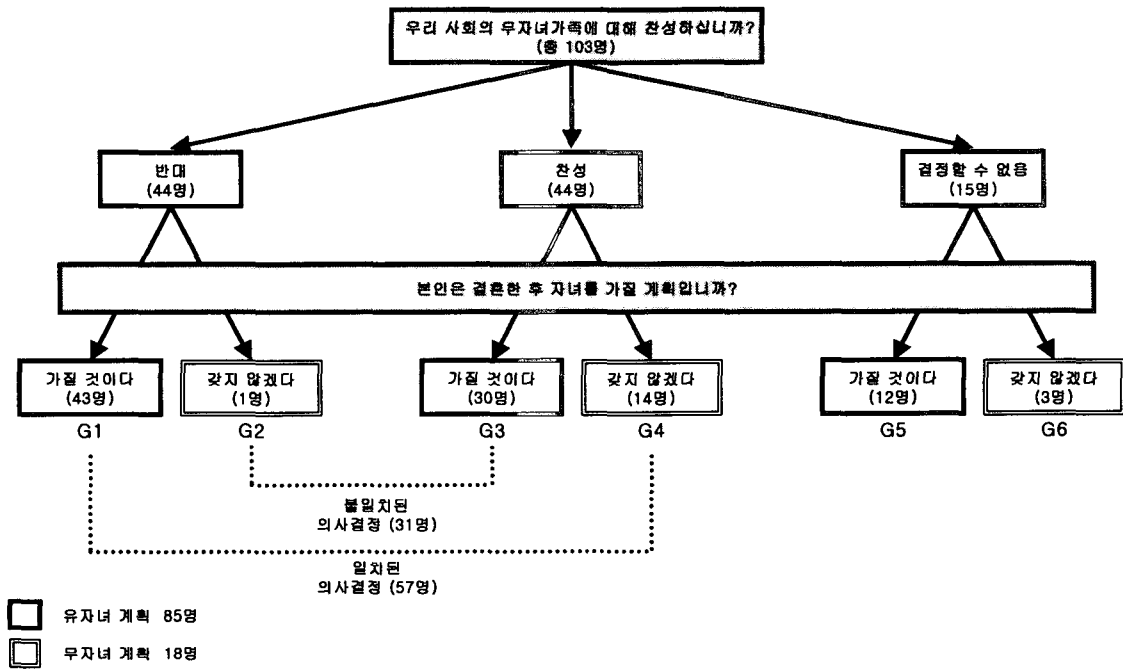
무자녀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생소한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난 이제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도 무자녀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여, #81)” 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무자녀가족이란 용어 자체에 반감을 가지면서 무자녀가족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자녀가족은 단지 법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이라 하면 나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와 연결되는 혈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자녀가족에는 나와 혈연을 맺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족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여, #31)

2. 유자녀 및 무자녀가족에 대한 의사결정

20대 미혼 대학생들의 무자녀가족에 대한 정의적 개념을 바탕으로 유자녀 또는 무자녀가 되기로 결정하는 이유를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라 분석하였다(그림 1). 양적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므로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으나, 사회적 차원의 태도와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무자녀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연구참여자 103명 중 찬성 44명, 반대 44명,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15명으로 나타났다. 결정하지 못하는 15명은 일반적으로 “나의 일이 아니므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무자녀가족에 대한 질문을 개인적 차원으로 끌어내려 분석한 결과, 자녀를 갖겠다는 대답이 85명, 무자녀가족이 되겠다는 대답이 18명으로 나타났다. 무자녀가족 찬반에 관한 구체적 이유에 있어서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간에 유사성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각 차원의 찬반 이유를 반복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 특별히 구분하여 연구결과에 제시하지



<그림 1> 유자녀 및 무자녀가족에 대한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

않았다. 단,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적 차원의 반대 이유로 “국가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는 언급을 하였다.

다음 <표 1>은 연구참여자들이 유자녀 및 무자녀가족이 되려는 이유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 유자녀 및 무자녀가족이 되려는 이유

유자녀가족이 되려는 이유	무자녀가족이 되려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위성 • 전통적 가족에 대한 이상화 • 부모역할에 대한 낭만적 관점 • 사회적 압력 • 도구적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 자녀 양육에 드는 고비용 • 전통적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1) 유자녀가족이 되려는 이유

자녀를 갖겠다고 대답한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무자녀가족을 자기중심적이고, 책임과 희생을 회피하며, 자기만 편하려는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하였다. 무자녀가족은 “질 높은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행의 환상에 젖어 자녀출산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발상(남, #14)”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여, #93)”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녀출산을 “인간의 도리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규정하고, 논리적 근거보다는 당위성에 입각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취미나 여가생활 그리고 어떤 형편으로 인해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동물은 없다. 하물며 인간이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이기심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가 없다면 자신의 자유나 더 업그레이드 된 나를 만들기는 쉬운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한 생명을 잉태하며 낳고 기르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감동들을 겪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을 포장도 풀지 않고 갖다 내버리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일까? 나를 위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이것은 한낱 수준 낮은 이기심일 뿐이다... 무자녀 부부들은 자신들을 그냥 다른 평범한 부부처럼 보아달라고 한다. 그들의 말이 맞다. 그들이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자유스럽고 부러운 것이 아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더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할 것이다. (여, #3)

자녀출산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전통적 가족구조 및 기능이 이상적이라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대답이 반복되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이 묘사하는 행복한 가정은 구조기능주의적 성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한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은 오전에는 토끼 같은 자녀 들과 늘 다정다감한 남편의 출근길을 배웅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의 즐겁고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저녁시간이 되면 남편과 아이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입니다. (여, #12)

연구참여자들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있고 그 부모를 따르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개념화했다. 특히 원가족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가족이 너무나 만족스러워 나도 이런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원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나, 내 남편, 아이로 구성된 가족”을 만들어 “행복한 우리 가정의 엄마, 아빠를 닮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특히 “부모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세대전수의 소망도 피력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가진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부부 관계를 위해서도 자녀가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연결된다. 자녀를 사랑의 열매, 사랑의 결실, 애정의 결정체, 결혼생활의 증거, 피한방을 섞이지 않은 남편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 등으로 의미 부여함으로써, 자녀가 없는 부부관계는 “가볍고, 신중하지 못하며,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들은 무자녀가족이 항상 신혼 같을 수 없으며, “부부를 이어주는 끈”인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이혼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노년기가 되면서 “그들을 돌보아줄 자녀가 없다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겪게 되고, 두 부부만이 단조롭고 삭막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무자녀가족의 부부들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간의 사랑이 더 커진다고 믿기 일쑤이다. 아이가 없으면 둘이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둘만의 시간이 늘어나 아이에게 쏟을 시간을 서로에게 쏟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본다. 아이가 없다면 자신만의 일과 시간에 쫓겨서 서로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점점 멀어져갈 것이다. 또한 싸움을 했을 때도 아이를 보며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고, “아이도 없는데 이혼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쉽게 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이가 없는 허전함은 우울증으로 바뀌기 쉽고, 남편들은 다른 여자와 바람타기 쉬울 것이다. 돈 많이 벌고 명성을 얻어도 죽을 때 물려줄 후손이 없을 때 “인생을 왜 살았나” 하는 허무감마저 들 것이다. (여, #55)

유자녀를 희망하는 세 번째 이유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출산과 양육에 낭만적 의미부여를 하며, “나와 내 반려자를 고루 닮은 분신 같이 예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보람과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부모역할을 통해 “배려, 인내, 희생을 경험하면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녀란 사람에게 내려진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이 나오면서 성장하면서 서로를 아무 조건 없이 지켜주

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자녀는 배우자보다 더 가까운 존재일 것이고, 자녀만큼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싶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혈육이란 대단한 것이고, 우리 자신들을 평온하고 온유하게 만든다. “자녀를 갖고 싶다”기 보다는 “나와 동일한 존재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자녀는 나의 친구이고 형제이고 부모 같은 존재가 되어줄 것이다... 왜 대개가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마인드가 자녀를 낳는 것부터 거부감을 들게 하고 자녀를 갖게 되더라도 큰 부담을 갖는 이유가 아닐까? 나는 자녀란 단지 나이가 어릴 뿐이지, 제 2의 부모라고 생각한다. (여, #101)

부모가 되어서 내가 정의하는 진정한 성인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가 되어야 진짜 어른이 될 것 같다고 항상 생각해 왔었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배려해주면서 한 사람의 인격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직접 출산의 고통을 견뎌보고, 엄마가 지금까지 날 키워주실 동안 겪으셨던 고생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내가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과 고통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인내심,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이해심 등을 부모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여, #20)

유자녀가족이 되려는 네 번째 이유로 사회적 압력이 언급되었다. 무자녀가족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이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의 두려움은 자녀를 갖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무자녀가족이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묘사하라는 질문에 대해 이들이 “자녀에게 투자할 시간을 주위 인간관계에 쏟으므로, 더 적극적이고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하다(여, #87)”고 대답했다. 또래집단은 이들의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에 부러움을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아이가 커갈수록” 공동관심사의 부재로 인해 무자녀가족이 소외를 경험하리라는 데 일치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사회에서 부모가 된 사람들의 대화를 “자식 자랑이 절반, 자식 걱정이 나머지 절반”이라고 묘사하면서, 아동중심가족의 특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노년기까지 지속되어 무자녀가족이 “부부 안에서만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우리 사회에는 자녀를 가진 가족만을 안정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버티고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는 무자녀가족을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본다. 내가 자녀를 가지는 일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선택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를 갖게 하는 가장 무서운 이유라는 생각이 든다. (여, #16)

특히 확대가족으로부터 오는 자녀출산에 대한 압력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참여한 20대 미혼 대학생들은 무자녀가족의 확대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한결같이 일치된 대답을 하였다. 이들은 “어느 부모인들 손자, 손녀를 바라지 않겠는가?” 라고 되물으며,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아 대를 이어야하고, 그것이 참된 부부 또는 자식의 도리이며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여, #36)” 는데 동의했다. 부모세대에게 무자녀가족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부부” 나 “철없는 덩크족” 으로 비취질 것이며, 자녀출산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며느리인 여성은 무자녀가 되기로 한 부부의 합의나 자발적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출산을 거부했거나 불임으로 간주되어, 죄를 지은 사람처럼 책임을 추궁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결국 고부갈등으로 심화되어 “소박 아닌 소박” 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친인척들과의 관계에서도 자녀양육이라는 공통화제가 없으므로 점차 확대가족을 회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확대가족이란 세대전수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 이라는 전제 하에, 손자녀가 커가는 과정에 동참할 수 없게 된 부모세대와의 결속력 약화, 그리고 확대가족으로부터의 소외와 고립을 우려하였다.

확대가족 내에서 무자녀가족이 가지는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집단의 대소사는 직계가족이 모두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자녀가족은 주눅이든 채 다른 이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남편이 아무리 구체적인 이유를 들며 아내를 옹호한다 하더라도 시댁 가족들의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녀가 없는 것은 현재 본인보다 뒷세대분들에게 엄청난 흠이 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어떠한 구박을 하더라도 며느리 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칠거지악(七去之惡)에 있는 것을 볼 때, 친정에서도 역시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시댁과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남, #18)

마지막으로, 자녀출산에 대한 도구적 동기가 제시되었는데,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과 노년기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이 언급되었다.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면서 “제사 지낼 사람, 즉 상주가 있어야 한다(남, #14)” 는 소수이나 주목할만한 의견도 있었다.

아이를 잘 키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면 그 또한 매우 보람된 일일 것이다. 아이가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실현시켜 줘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 아이는 커가면서 부모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다. 또한 아이를 낳음으로써 자동적으로 부모의 노후는 보장된다. 자식을 낳으면 힘없고, 외로울 때 자식들이 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여, #27)

무자녀가족을 선택한다면 젊어서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자녀가 없으면 느끼는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커서 노년의 삶이 더 불행해지게 될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고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이나 쓸쓸함은 무자녀가족보다 적을 것이다. (여, #98)

2) 무자녀가족이 되려는 이유

무자녀가족을 선택한 연구참여자들(남 2명, 여 16명)은 자녀출산을 선택한 연구참여자와 상반되게 무자녀가족의 부부관계가 유자녀가족보다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들은 무자녀가족의 부부관계를 경제적 풍요, 시간적 여유로움, 부부 양성평등, “연애시절과 같은” 친밀감 등의 낭만적 관계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낭만적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압력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가 결혼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둘만이 가지는 시간이 늘어나고 같이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부부관계는 더욱 성숙될 것이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 주는 자세도 높을 것이다. 자식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교육적 스트레스가 없을 것이며, 결혼만족도도 결혼 초나 말에도 똑같이 유지 될 것이다... 그러나 주위에서 “아직도 자식이 없어?” “왜 자식을 갖지 않는거야?”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을 것이고, 그들의 부모 또한 자식을 갖는 것에 압력을 주어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다. 부부간의 일시적인 불화가 있을 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참으며 슬기롭게 그 기간을 극복해 낼 것이지만, 자식이라는 가족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부부간의 헤어짐을 쉽게 생각하게 되어 이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여, #35)

사실 자녀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로는 배우자와의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들 수 있다. 육아에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고 자녀가 생김과 동시에 부부 둘만의 시간은 거의 보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례상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동안 들어가는 양육비와 학비는 정말 굉장하다. 그렇다고 예전과 달리 노후보험처럼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자녀를 낳아서 노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경제적 면에서 보상보다는 소비의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남, #102)

무자녀가족을 선택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사회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엄청난 사교육비 감당하느라 부모 등골 땀(여, #77)” 는 표현을 하였다. 시간, 돈, 에너지 투자와 같은 경제적 고비용이 무자녀가족을 결심하는 실제적인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무자녀가족을 선택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문화가 부모라는 역할에 부여하는 높은 기대와 과중한 부담, 그 자체가 심리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아래 인용한 내용은 무자녀가족을 선택한 이유를 극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어디 아이 하나 키우기가 쉬운 일인가? 들어가는 돈은 또 얼마인가? 경제는 어렵고 맞벌이를 해야만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이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여자는 언제나 선택의 길에 서게 된다. 아이냐, 일이나? 아무리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도 남자는 집안 일을 도와주는 것뿐이지 집안일 담당과 책임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는 것이다. 아이의 양육문제도 그렇다. 아이 또한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커야 하지 않는가? 일을 하는 엄마라면 집에서 아이만 보는 엄마하고는 다르다. 솔직히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가 신경을 써주고 보살펴줘야지 바르게 잘 크다. 내가 아주 부자라서 돈을 벌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난 아이보다는 나의 행복을 선택하고 싶다. 난 내가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렇다. 오빠와 나를 지금껏 키우시느라 엄마, 아빠는 제대로 숨 한번 못 쉬고 힘들게 살아오셨다. 엄마, 아빠 본인 보다는 우리를 위한 부분이 더 많았다. 이런 모습이 한없이 고맙지만, 가끔은 우리가 부모의 삶을 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누군가를 위한 삶은 싫다. 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여, #76)

나에 대한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이 내가 자녀를 갖고 싶어하지 않는, 무자녀가족을 선택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엄마가 나에게 했듯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해줄 자신이 없다. 난 지금의 엄마만큼 부모역할을 해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엄마가 자녀가 없었더라면 엄마 자신을 위해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녀로서 갖는 죄책감이 있다. 어떻게 보면 더 이기적일 수 있다. 엄마처럼 나의 인생을 자녀에게 바칠 만큼의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엄마가 나 때문에 엄마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내 자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다. (여, #17)

위의 전형적인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연구참여자들은 부모 역할이란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힘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가족 경험은 자녀출산 여부를 결정하는데 양가

적(ambivalent)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긍정적인 원가족 경험은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를 높이는 동시에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임으로써 “우리 부모처럼 할 자신이 없게” 만드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부모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직업적 성취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20대 미혼 대학생들이 무자녀가족을 지향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자녀가족을 선택한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므로 조심스러운 추론이 필요하지만, 여성참여자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하면서 직업적 성취와 자녀양육을 상충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 여성참여자(여, #85)는 “[일 하는데 있어] 아이는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3. 사회적 및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본 연구에서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 의해 도출된 잠정적 이론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이 일치하는 집단과 불일치 하는 집단이 나타난다(그림 1). 먼저, 두차원의 의사결정이 일치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의 무자녀가족에 대해 반대하면서 본인은 자녀를 갖겠다는 집단(G1=43명)과 무자녀가족을 지지하며 본인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집단(G4=14명)으로 나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무자녀가족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연구참여자들로서 무자녀가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띄며 대립한다.

두차원의 의사결정이 불일치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의 무자녀가족에 대해 반대하지만 본인은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집단(G2=1명)과 무자녀가족을 지지하지만 본인은 자녀를 갖겠다는 집단(G3=30명)으로 나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무자녀가족을 지지하지만 본인은 자녀를 갖겠다는 연구참여자들(G3)은 자녀출산이 개인의 선택이므로, “왈가왈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개인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이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무자녀가족을 “찬성한다기 보다는 반대하지 않는 것”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동의하지는 않으나 내 가치관을 강요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지한다” 고 말했다.

무자녀가족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무자녀가족이 대세가 되어 늘어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선택에 의해 무자녀가족이 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미의 찬성이다. (남, #48)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자녀를 가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한 무자녀가족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이를 낳아 기를 자유와 권리가 있듯 그들도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

다. 그러니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 #69)

우리 사회의 무자녀가족에 대해 반대하지만 본인은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대답한 유일한 연구참여자(G2=1명)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설명하였다.

내 마음속으로는 무자녀가족을 반대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자녀가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무자녀가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무자녀가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 #30)

IV. 논의점

본 연구의 논의는 20대 미혼 대학생들이 무자녀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의적 개념에 관한 분석을 시작으로,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라 도출된 연구참여자들의 자녀출산 및 무자녀 결정 이유를 탐색한다. 끝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무자녀가족에 대한 태도의 일치 및 불일치가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자녀가족에 대한 정의적 개념

연구에 참여한 20대 미혼 대학생들은 무자녀가족을 양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체적 불임으로 인해 “불쌍하고, 우울하고, 불행한 부부”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덩크족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자유로움과 자아성취를 중시하는 이기적인” 중산층 이상의 전문직 맞벌이 부부를 묘사하였다. 어느 경우든 서구의 기존 연구들(Daniluk, 2001; May, 2001)에서 보여지는 불행하며, 무책임하고, 비정상적이고, 이기적인 무자녀가족에 대한 평가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무자녀가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양분화 하는 데는 오류가 따른다. 먼저, 무자녀가족을 덩크족과 동일시하는 경우 전업주부가 있는 무자녀가족을 제외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라 해도 모두가 중산층 전문직일 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생계유지형 맞벌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무자녀가족을 자발성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경우, 이들을 자발적무자녀가족(voluntary childless family)과 불임부부로 양분하게 된다. 이는 자발성보다는 현실적 여건에 의해 자녀출산을 미루다가 결국 불임이 되거나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따른 무자녀가족(childless by happenstance)”을 간과하는 것이다(Cain, 2002).

최근 우리의 침체된 내수경제를 고려한다면, “상황에 따른 무자녀가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대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50%에 육박하는 357,000명으로 늘어난 현상황(통계청, 2004년 5월 「고용동향」)은 극히 개인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과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쳐 만혼과 만산을 유발하고 있다. 취업이 된 경우에도 직장의 불안정성, 조기퇴직, 여기에 자녀양육 및 교육에 드는 고비용은 “좀더 안정될 때까지” 자녀출산을 지속적으로 미루다가 가임기를 놓치거나, 혹은 “낳고는 싶지만 감당할 수 없어서” 무자녀가족이 되는 상황을 증가시킨다(고선주, 2003). 무자녀가족의 원인을 신체적 불임으로만 치부하거나, 또는 확실한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한 것(childless by choice)으로만 보는 시각은 그 중간에 있는 다수의 상황적 무자녀가족을 소외시키는 것이다(Griffin, 2003). “상황에 따른 무자녀가족”에 대한 인식은 가족이 처한 맥락, 그리고 가족과 거시체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무자녀가족에 대한 양분적 개념화는 현재 우리 사회가 무자녀가족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임을 반영한다. 무자녀가족이란 유자녀가족과 대립되는 이분법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연속선상에 있는 과정적 개념으로,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진행형의 실천(Letherby & Williams, 1999)”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2. 유자녀 및 무자녀가족에 대한 의사결정

연구에 참여한 20대 미혼 대학생들은 유자녀 및 무자녀가족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보수적 성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보수적 성향은 옥선화(2003)가 20~30대 기혼 성인남녀 450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 연구에서와 유사한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1.3%만이 무자녀를 원했으며 이상적 자녀수의 평균은 2.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자녀나 무자녀가족을 선택한 연구참여자들의 숫자 그 자체보다는 이들이 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의사결정 이유에서 드러나는 규범적 가족구조(structure of the intact family)에 대한 긍정, 이분화된 성역할에 근거한 가족기능의 수용, 문화적으로 규정된 전통적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 등은 “신세대”라는 이들의 가족관이 과연 기성세대와 구별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 무자녀부부 대신 무자녀가족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단어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을 탐색하기 위한 의도와 함께 자녀가 없는 부부도 가족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 유자녀가족”이란 동일시를 통해 전통적 가족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무자녀가족에 대해 “이기주의자”라든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비판으로 나타난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신념은 결혼안정성(marital stability)을 위해 자녀가 필요하며, 자녀양육의 기쁨이나 부모역

할의 보람 등을 강조하는 낭만적 관점과 연결된다.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이나 자녀가 노후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되리라는 기대 역시 부모가 되려는 전통적인 도구적 동기(Bigner, 2002)를 그대로 답습한다. 특히 확대가족으로부터의 압력이 자녀출산의 주요 이유로 대두되었는데, 이들로부터 오는 규범적 승인(노영주, 1996)을 중요시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부모세대가 손자녀 출산을 원한다고 확신하며, 세대전수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이를 완수하지 못할 때 야기되는 전형적인 고부갈등을 상정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확대가족관계가 실제로 어떠한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20대 미혼 대학생들이 확대가족관계를 관념적 수준에서 어떻게 가정하고 있는가를 탐색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문화 특유의 사회심리적 변인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고 하겠다.

무자녀가족을 선택한 연구참여자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부모-자녀관계보다는 부부중심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전통적인 부모의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이들은 무자녀가족 선택의 이유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심리적 고비용을 자아성취나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부모역할을 완수하는데 지나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역설적으로, 무자녀가족을 선택한 연구참여자들이야말로 부모역할에 대해 보다 높은 기대수준, 보다 깊은 애정, 보다 거룩한 희생을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우리 문화에서 부모역할이 갖는 숭고한 이미지는 “양날의 칼”처럼 작용하여 꼭 해보고 싶은 경이로운 경험으로 미화되거나, 반대로 개인적 성취를 강조 받아온 젊은이들이 완수하기에는 버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다.

3. 사회적 및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무자녀가족에 대한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은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내린 의사결정의 일관성 여부를 보여준다. 주목할만한 결과는 두차원의 의사결정이 불일치 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무자녀가족을 지지하지만 본인은 자녀를 갖겠다고 대답한 연구참여자들은 전통적인 가계계승 의식과 아동중심가족관을 갖고 있지만,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식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자녀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력(tolerance)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출산장려책 뿐만 아니라 타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을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옹호(advocacy of diverse families)를 통해 진정한 사회적 화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20대 미혼 대학생들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다수가 자녀출산 의지를 피력하며, 무자녀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초반의 미혼 연구참여자들이 이처럼 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재 자녀출산기에 있는 기혼부부들 사이에서 무자녀가족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회적으로 무자녀가족을 반대하지만 본인은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대답한 한 연구 참여자(여, #30)의 대답은 “상황에 따른 무자녀가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재고하게 한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무자녀가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자녀를 기르는데 생기는 비용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한국 가족의 가치관에 관해 1,387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은기수·장혜경, 2004)에서도 취업의 어려움과 직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악화된 경제 상황이 자녀출산을 막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수용한 전통적 가족관이 사회적 장애물에 부딪혀 자녀를 “안 낳는 것이 아닌 못 낳는 것”이 된다면, 이는 개별 가족 차원의 미시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개입되어야 할 거시적 문제인 것이다.

본 연구는 20대 미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가 규정하는 무자녀가족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즉 이들의 가족개념, 자녀관, 부모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보다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타당화검증을 위한 후속작업으로서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서 도출된 잠정적 이론모델을 새로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타당화검증 과정을 통해 무자녀가족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에 대한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효율적 정책 제안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을 높여 차이(difference)가 차별(discrimination)을 낳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접수 일 : 2004년 07월 15일

심사 일 : 2004년 07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4년 09월 24일

[참 고 문 헌]

- 고선주(2003). 부모기 전이기 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 건강가정심포지움 자료집**, 77-106.
- 김승권(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12, 6-21.
- 김한곤(1991). 기혼여성의 무자녀지향과 그 결정인자에 관한 연

- 구: 1966-1985. **영남대새마을지역개발연구**, 11, 219-233.
- 노영주(1996).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어머니됨.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 35-55.
-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 옥선화(2003). 20·30대 기혼남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지각수준과 저출산 대책. **대한가정학회 건강가정심포지움 자료집**, 27-46.
- 은기수·장혜경(2004). 한국가족은 어떤 모습인가?: 가족가치관과 혼인 및 출산. 여성부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세미나 자료집, 19-34.
- 이연주(2003). 결혼 및 출산 등의 가족형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가정과 직장의 병립을 위하여. **보건복지포럼**, 12, 22-32.
- 이춘석(2003).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대한가정학회 건강가정심포지움 자료집**, 3-24.
- 조선일보(2003). 아이 안 낳는 사회: 출산율 세계 최저. 2003. 8. 11. 8면.
- 중앙보(2003). 여성은 지금 출산과업. 2003. 7. 12. 10면.
- 조옥라(1999). 21세기의 가족형태와 모성.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 “21세기와 여성문화.”**
http://www.sungshin.ac.kr/~kowoin/d_2b.htm
- 조용환(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통계청(2004). 세계 및 한국 인구현황.
- 통계청(2004). 2004년 5월 고용동향.
- 퍼디리포트(PD 리포트)(2003). 출산율 1.17 시대. EBS 2003. 8. 2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전국출산력 및 보건실태조사.
- 한국여성개발원(2004).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 Bigner, J. J.(2002).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6th ed.)*. NJ: Merrill Prentice Hall.
- Cain, M. 이한중 역(2002). **무자녀 혁명**. 서울: 북키앙.
- Creswell, J. H.(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Inc.
- Daniluk, J.(2001). Reconstruction their lives: A longitudinal, qualitative analysis of the transition to biological childless for infertile coupl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4), 439-449.
- Griffin, K.(2003). Childless by choice. <http://www.babycenter.com/essay/preconception/gettingpregnant/6097.html>
- Hill, C. E.(1998). Decision modeling: Its using medical anthropology. In De Munck, V. C. & Sobo, E. J.(Eds). *Using Methods in the Field: A Practical Introduction and Casebook(139-164)*, Walnut Creek, CA: AltaMira.
- Letherby, G. & Williams, C.(1999). Non-motherhood: Ambivalent autographies. *Feminist Studies*, 25(3), 502-528.
- Mason, J. 김두섭 역(199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사.
- May, E. T.(2001). Barren in the promised land: Childless Americans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5(1), 171-188.
- Miles, M. B. & Hurbeman, A. M.(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2nd ed.)*. Thousand Oak, CA: Sage.
- Ryan, G. R. & Bernard, R.(2000).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In Denzin, N. K. & Lincoln, Y. S.(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769-802,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 Ryan, G. R. & Martinez, H.(1996). Can we predict wha mother do? Modeling childhood diarrhea in rural Mexico. *Human Organization*, 55, 47-57.
- Schwandt, T. A.(1997). *Qualitative inquiry: A dictionary of term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 Spradley, J. P.(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Van Manen, M.(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s: Human science of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